

광주·전남경찰, 4~5조 3교대 근무체계 개편에 '탁상행정'

경찰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4~5조 3교대 근무 체계를 시범 도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현장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무 체계 변경에 따라 출근 일수가 늘어나고 휴일 수당 산정 방식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한편, 본청이 직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전국 8개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4~5조 3교대 근무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며 광주에서는 북부경찰서 전국지구대가 5조 3교대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적용 지구대·파출소가 없다.

그간 지구대·파출소 직원에게는 4조 2교대 근무 체계가 적용돼 왔다. 주간(오전 7시~오후 7시), 야간(오후 7시~오전 7시)으로 12시간씩 일한 뒤 교대한다. 야간 근무 이후에는 퇴근해 하루 비번을 가진 뒤

전국 8곳 시범운영... 광주시는 북부경찰 전국지구대 4조 3교대 "실질적 야간 근무 4일"... 불만·우려 속출
5조 3교대는 인력·수당 산정 등 현실적 문제 제기
일선 경찰 "직원 숙의 없는 일방적 도입... 소통해야"

다음날 휴식하는 체계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 도입된 4조 3교대의 경우 근무 시간이 주간(오전 7시~오후 3시), 오후(오후 3시~오후 11시), 야간(오후 11시~오전 7시)으로 재편됐다. 해당 근무 체계에서는 한 조가 주간 2일, 오후 2일, 야간 2일,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 줄어 들지만 출근 일수가 일주일에 6일에 달하게 되면서 연간 약 80일의 휴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조 3교대는 한 조 당 주간·오후·야간·휴무·비번·주간·비번·야간·휴무·비번 순으로 근무를 선다.

한정된 인력을 쪼개 조를 늘리는 만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며 주간 근무가 오

후 6시 이전에 끝나는 경우 휴일 수당 산정 기준에도 문제가 생겨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광주 현장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특히 휴일 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시범 도입 직후부터 불거지며, 최근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수당 인정 시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정식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일선 지구대 한 경찰은 "4조 3교대 체계에서 오후 근무와 야간 근무가 교대되는 오후 11시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지구대·파출소 특성상 희박하다. 결국 사실상 4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라며 "직원들의 건강

권을 고려해 근무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도 본청이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시범 운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폴넷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4조 3교대 시범 운영 결정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구 목적의 시범 도입"이라는 설명이 직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조 3교대로 인한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 직원은 "하반기 인사로 인해 청으로 전보된 인원이 많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구대 인력을 차출하고 있다"며 "결국 지구대는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5조 3교대 도입에 앞서 조직 개편과 인력 수급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권철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하라"... '책임인정' 잇단 승소

1970~1980년대 운영된 부산 내 부랑아 집단 수용 시설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중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입소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1억8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 북구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든 시설이다.

A씨는 아버지 등 보호자가 있는데도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생활을 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돼 강제노역하고 성폭행·가혹행위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 부장판사는 "A씨가 퇴소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의 적극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 인권 침해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해 유사 행위 재발을 위해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한 점,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B씨가 낸 국가 손해배상에서도 "국가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1979년 여름 무렵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2주 후 친형이 찾아온 뒤에야 시설에서 퇴소했다.

하 부장판사는 B씨가 당시 강제노역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형을 비롯한 보호자가 있는 상황인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상 지연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한 점,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확정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국가 배상 위자료를 정했다. /뉴스1

전남자치경찰위,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총력

정기회의서 순찰 강화·예방 활동 추진·방법시절 점검 당부
아동학대 피해 조기 발견·교통 사각지대 안전대책도 검토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전남경찰청과 함께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월 정기회의를 열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 등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올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절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새벽 시간대 집중 예방 활동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창고 외진 곳에 있거나 수확물을 받두렁 등에 적치하

는 사례가 많아 범행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농산물창고의 방법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재정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추석 특별 치안활동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고위험군 아동을 선별해 학대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상시화와 학교·지역사회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취약지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확충, 무인단속부스 시인성 제고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자치경찰위원회 신규 사업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도 면밀히 검



토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불안을 낮추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경찰의 책무"라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소중한 농산물이 절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 있는 예

방 활동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추진해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민규 기자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주도적 학습 미래설계 지원

특수학교(급) '2030 수업나눔' 개최 특수교육 수업혁신 확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특수학교(급)의 수업혁신과 학생 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1일 나주중앙초등학교와 28~29일 함평영화학교에서 '특수학교(급) 2030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이번 수업나눔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습의 주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미래형 수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사의 일방적 전달식 수업을 넘어, 학생이 탐구하고 표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 중심 교실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주중앙초에서는 금성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간 원격수업을 통해 '보편적 학습 설계 기반 디지털 리포터 수업'을 선보이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명소와 문화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여 자신만의 영상과 그림책을 제작해 발표한다.

특히 이 수업은 소인수학급이라는 특수교육 여건을 원격수업으로 뛰어넘는 미래 특수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경험이 교실을 넘어 실생활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 함평영화학교에서는 '2030 미래

교실형 수업모델'을 중심으로 협력적 수업과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수업 실험이 이뤄진다. 2030교실 연구회 교사들이 협력해 장애유형별 학습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더러시 교육, 원격 협력수업, 다교사 협력수업(1교사 n교사 모델)을 운영한다.

또한 수업 전·후 체크리스트와 피드백 회의를 통해 수업을 성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 간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수업나눔을 통해 학교 간 상호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수업 품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주도의 실천 연구와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미래교실'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 수업나눔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실의 시작점"이라며 "전라남도 교육청이 장애학생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30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에서 닷새간 수돗물 필터가 급격히 변색되면서 수질 우려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지역에서 20일까지 수돗물 필터 변색·수질 이상 관련 민원이 약 180건 접수됐다.

누리꾼들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하루 지나니 더러워진 필터' '사워 한 번 했을 뿐인데 이게 맞느냐' '필터와 사워

누런 수돗물 필터, 광주 민원 180건... "수질 이상은 없어"
"계절 바뀌면서 가라앉은 망간 유입... 인체 무해"

기 헤드도 새로 교체했는데 또 더러워진 내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까지 커뮤니티에서는 불순물이 낀 사워기 필터 인종이 이어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먹는 물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절 변화로 물이 상승·하강하면서 가

라앉은 고농도 망간이 주암댐에서 정수장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원 이틀날부터 정수 공정을 강화해 현재는 망간의 거의 검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공

정 강화 이전 저장된 수돗물이 각 가구로 공급되면서 당분간 필터 변색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에서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망간이 검출됐지만 소량 유입되더라도 필터를 변색시키는 특성이 있어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수와 정수 공정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헌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